

대학 산학협력 온도차... 창업기업 늘고 기술이전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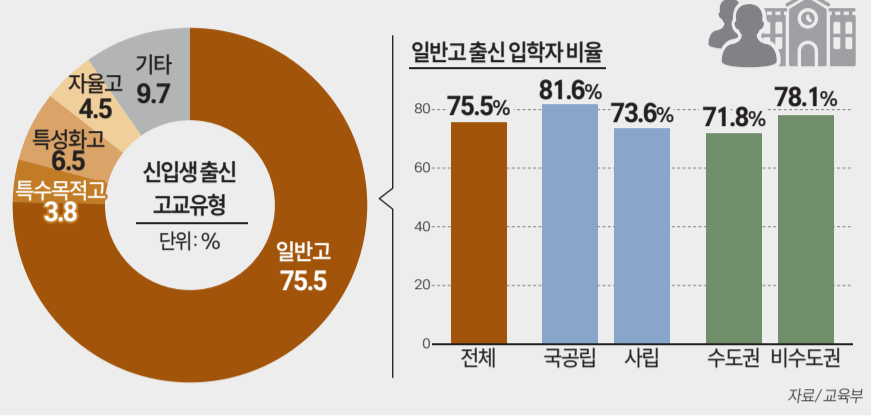
교육부,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4년제 기회균형 9.3%→9.5%
기술이전 건수·수입료는 줄어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산학협력 지표에서는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과 창업기업, 계약학과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실적과 수입료는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에는 신입생 선발 결과 등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이 공시된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 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항목은 신입생 기회균형 선발 결과,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 기술이전 실적과 수입료,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창업기업·창업감좌, 계약학과 운영 현황 등이

2026년 대학 신입생 현황



다.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 확대 흐름은 이어졌지만, 실제 입학 비율은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경우 2026년 전체 입학생 35만8499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3만3938명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9.5%로 전년 9.3%

보다 0.2%p(포인트)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6%로 국·공립대학 9.1%보다 0.5%p 높았다. 수도권대학은 10.4%로 비수도권 대학 8.8%보다 1.6%p 높았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7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9.7%, 특성화고 6.5%, 자율고 4.5%, 특수목적고 3.8% 순이었다.

전문대학에서도 기회균형선발 비중

은 증가했다. 2026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4만9347명 가운데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4458명으로, 비중은 3.0%였다. 전년 2.5%보다 0.5%p 올랐다.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은 일반고 59.1%, 기타 19.0%, 특성화고 18.7%, 특수목적고 1.9%, 자율고 1.4%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69.5%로 비수도권 50.7%보다 18.8%p 높았다.

산학협력 지표는 항목별로 엇갈렸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2025년 기술이전 실적은 4669건으로 전년 5575건보다 16.3% 줄었다. 기술이전 수입료도 1003억7000만원으로 전년 1183억2000만원보다 15.2% 감소했다.

창업 관련 지표에서는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2025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신규 학생 창업기업은 1998개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교원 창업기업도 414개로 13.1% 늘었다.

계약학과는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증가했다. 2026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약학과 수는 236개로 전년보다 1.3% 늘었고, 학생 수는 1만103명으로 4.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가 줄었지만 학생 수는 늘었고, 혼합형은 학과 수와 학생 수 모두 증가했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지표도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2025년 전문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75건으로 전년보다 29.2% 감소했다. 반면 기술이전 수입료는 3억4300만원으로 20.4% 증가했다. 건당 평균 수입료도 457만원으로 전년보다 69.9%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은 실제 등록 비율을, 산학협력은 단순 건수보다 수입료와 학생 참여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며 "대학 공시자료가 대학 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 지점을 찾는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

내달 1일부터 한달간 교직원 대상
이용수기·업무경감 제안 접수

서울 학교 교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줄일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이 7월 한달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1년을 맞아 학급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 및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와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등 2개다. 응모자는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dubliners1@se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수기 분야는 학교통합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경험을 작성하면 된다. 현장체험학습, 인력 채용, 호봉 업무, 교과서 배부 등 학교통합지원과 주요 업무를 이용한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중실하게 작성된 응모작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카페·베이커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분야는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 개선방안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성, 실현 가능성, 업무경감 효과성, 확산 가능성, 구체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와 우수 각각 1

명, 장려 5명 등 우수작 7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이용사례를 학교통합지원과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학교업무 경감 개선 과제 검토에 반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통합지원과 이용 경험을 공유해 학교업무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활용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금천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확정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도로 확폭 추진

서울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가 최고 3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독산로와 목골산 사이에 있는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최고 35층, 2600세대 인파의 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높이와 세대 수는 향후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산2동 380 일대 계획의 핵심은 동서 연결도로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이다. 시는 독산로 서측 독산동 1036·1072 일대 신설도로와 연계해 폭 15m 규모의 동서 연결 도로를 만들고, 북측 독산동 1022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도 단계적으로 도로망을 연결할 계획이다. 문교초등학교 앞

교차로도 개선해 통학로 안전을 높인다.

독산로는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차로, 폭 29m 규모로 넓힌다. 버스비도 포함된다. 주변 이면도로는 보행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해 확폭하고 보차분리를 추진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독산로를 제외한 주변 도로에 4곳 배치한다.

생활편의시설도 확충된다. 시는 독산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대상지 남측에 공원을 배치하고, 지형 차이를 활용해 공원 하부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계획도 반영했다. 시흥대로와 독산로, 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고려해 도로와 공공보행도로, 단지 내 외부공간을 연결한다. 목골산과 인근 저층주거지를 감안해 단지 경계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적용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2027 WCO 기술컨퍼런스 개최

내년 3월 9~11일 송도서 개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7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세계관세기구 주최, 관세청 주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협력으로 개최된다.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 총회에서 인천이 '2027 세계관세기구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행사는 187개 회원국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1,5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며 인천의 MICE



지난 1월 세계관세기구(WCO) 기술 컨퍼런스 현장. /인천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행사 유치에 관세청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기 정책제안 3020건 인천2호선 연장 '최다'

경기준비위, 온라인 정책제안 접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시민참여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지난 19일부터~26일까지 8일간 운영한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총 3020건의 도민 정책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 11개 분야에서 총 3020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교통·건설·환경' 분야가 전체의 8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제안이 1107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6월 30일 (화) / 음력: 5월 16일

수도권 날씨 / 22~3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동 긴장 재고조에 국제유가 선물 오름세... WTI 배럴당 70달러 ↑
▲美 공화당도 네타냐후 총리에 등 돌러...이스라엘 고립 심화 /사진 뉴시스

▲트럼프, 선거 개편 구상 제동... 법원·공화당 일단 반발
▲中관영지 "한국 탈락, 亞축구에 경종 돼야" 보도... SNS도 시선 집중

▲중국, 대기업 20곳 이중용도 품목 우려 대상 지정
▲日다카이치 지지율 2%p ↑... 9개월 연속 60%대 후반 유지